

## 쿠스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d/ 탈락에 대한 변이 사회언어학적 분석

김 경 래

(단국대학교 조교수)

### ◆ 국문초록

본고는 쿠스코 스페인어에서 /d/ 탈락에 대한 양상을 변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모음 사이 /d/ 약화 현상은 사회언어학적 접근 방법으로 자주 연구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남미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d/ 약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7~8월 쿠스코에서 24명의 현지인과 사회언어학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다. /d/가 어중 위치와 어두 모음 사이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d/의 전후로 반모음이 출현하는 경우도 연구에 포함하였고, 이 음소가 어느 정도로 탈락하는지 그리고 이 탈락에 어떠한 언어 내적, 언어 외적 변수가 이 음소의 탈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쿠스코에서는 /d/의 탈락이 어두 위치에도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모음이 후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oldvarb X*와 *LVS*를 활용하여 추론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 변수보다는 언어 내적 변수가 /d/의 탈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음소의 탈락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 변수는 화자의 성별과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회 변수가 연령 변수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변이 사회언어학, 음성 변이, 모음 사이 /d/ 변이, /d/ 탈락, 페루 스페인어

## 1. 머리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개인들 사이에서도 언어의 사용 방식은 다를 수 있다. Penny(2004:15)는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언어는 변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변이 사회언어학에서는 변이가 연령, 성별, 인종, 사회 계층, 교육 수준, 직업, 수입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언어 변이를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해, 사회적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스페인어에서 모음 사이 /d/의 변이는 변이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어진 주제이다. 스페인어에서 음소 /d/는 유성 폐쇄 치음으로 정의되지만(Navarro Tomás 1967:98), /b/, /g/와 함께 스페인어 음운 체계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이는 /d/가 폐쇄음 [d]로 실현되거나 접근음 [ð]로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d]는 /d/가 비음, 측음, 휴지에 후행할 때 나타나는 반면, [ð]는 이를 제외한 모든 위치 혹은 모음 사이에서 주로 실현된다(Clegg y Fails 2018; Harris 1969; Hualde 2005; Martínez Celdrán y Fernández Planas 2007; Marcaró 1984; Navarro Tomás 1967). 스페인어에는 이 두 소리로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소리는 /d/의 이음(alófono)으로 간주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음소 /d/가 실제 발화에서는 곧잘 약화되며 경우에 따라서 탈락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오래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arbona et al, 2011:99). 이 자음의 약화와 탈락은 단어의 처음과 끝, 그리고 단어 내부에서도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모음 사이에서의 탈락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다. RAE y ASALE(2011:146)에 따르면 모음 사이 /d/ 탈락은 스페인 전역에 걸쳐 나타나며, 특히 남부 지역 방언에서 그 출현 빈도가 높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안달루시아와 카나리아 제도를 중심으로 /d/ 탈락 현상에

대한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물론 마드리드, 발렌시아, 칸타브리아와 같은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도 관련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남미 지역에서도 다수의 관련 연구가 발견된다. 특히 카라카스의 경우 /d/의 약화 현상이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Malaver y Perdomo(2016)에서는 모음 사이 /d/의 탈락률이 54%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안데스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Lipski(1996:212)는 볼리비아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에서 교양 있는 화자들조차도 모음 사이 /d/를 빈번히 탈락시킨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계량적 분석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페루 안데스 지역 또한 예외는 아니며,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모음 사이 /d/의 변이 양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회 음성학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연구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로, 김경래(2023)는 페루 쿠스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량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현지에서 24명의 화자와 직접 사회언어학 면담을 통해 수집한 발화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모음 사이 /d/의 탈락 빈도가 대략 36%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스페인 남부 일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탈락률로, 해당 음소의 약화가 쿠스코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지역에서 관찰된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d/ 탈락 현상이 [ádo], [ódo]와 같은 음운 환경과 과거분사를 나타내는 일부 문법형태소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절음적 환경과 어휘소에 걸쳐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페루 남부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d/ 약화 현상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보완할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김경래(2023)는 최근 연구 동향을 반영하여 /d/가 단어 내부에 위치하는 경우로만 분석 환경을 제한하였다. 하지만 쿠스코에서 수집된 자료를 잘 살펴보면 /d/가 모음 사이 위치이면서 어두에 출현하는 경우(예: *le digo*, *la discoteca*, *de dónde*)에도 탈락이 발생하고, 심지어 /d/ 이후로 반모음이 출현하는

경우에도 탈락이 발견된다<sup>1)</sup>). 따라서 이러한 음운 환경들도 분석에 포함되어야 쿠스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d/ 탈락에 대한 양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추론통계도 적용되지 않았다. 추론통계는 최근 변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필수적인 분석 절차로 여겨진다(Serrano 2014:7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변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해당 음소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 음운 환경은 /d/가 어두와 어중 모음 사이에 나타날 때이며, /d/에 반모음이 인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해당 음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 변수로는 화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 사용 언어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진행된다.

- a. 쿠스코 스페인어에는 /d/ 탈락이 크게 확산되어 있으므로 이 음소가 어두에 위치하거나 반모음이 주변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탈락되는 사례가 나타날 것이다.
- b. 언어 내적 변수가 사회 변수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특히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이 /d/의 탈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c. 남성 화자와 젊은 화자들의 발화에서 탈락 비율이 높을 것이며, 사회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 II. 선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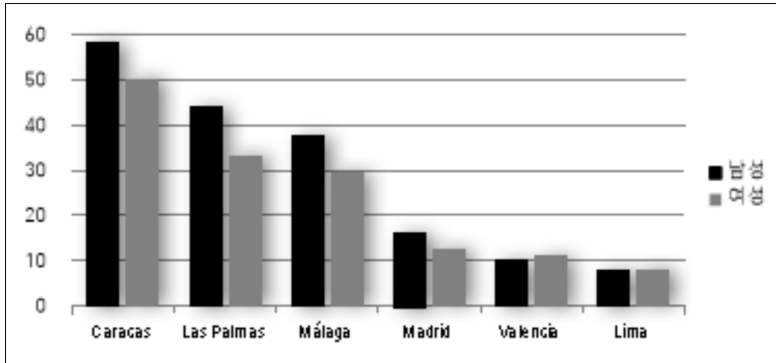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모음 사이 /d/가 약화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Menéndez Pidal(1958:139)은 ‘-ado’ 형태에서 이 음소가 탈락된 최초 사례가 1737년 발간된 문서에서 발견되었다

---

1) 기존의 모음 사이 /d/에 대한 변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는 보통 /d/ 이후에 반모음이 출현하면(예: estudiante, nadie) /d/가 잘 약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고 하였다. 또한, Frago(1993:470-473)는 15세기에 스페인 테루엘 지역에서 발행된 문서에서 /d/의 탈락을 암시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이처럼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일부 폐쇄음들의 약화 현상은 최근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Moreno Fernández(2004:999)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d/의 약화 현상은 언어 내적 요인에 기인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페인어권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때 언어 내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언어적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약화 현상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및 후행 환경과 같은 분절음적 환경이나, 음절의 위치와 같은 운율적 환경의 제약에 영향을 받아 변이 규칙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음 사이 /d/의 약화 현상에 대한 변이 사회언어학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개별 연구들에서 고려되는 언어 내적 변수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단어 내 강세 위치, 선행 및 후행 모음, 음절 수, 문법 범주, 형태소의 경계, 빈도 등을 주요 언어 내적 변수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언어 변수는 /d/를 둘러싼 음운 환경이다. 이 변수는 거의 모든 연구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언어 변수로, 다수의 연구는 /d/ 탈락이 ‘-ado’ 환경에서 가장 두드러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음소 /d/의 변이에는 언어 내적 변수는 물론 사회 변수도 관여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d/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중에서 성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빈번히 모음 사이 /d/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자주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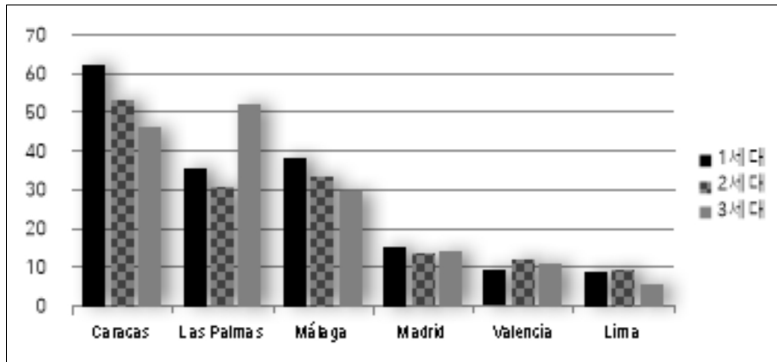
〈그림 1〉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성별 모음 사이 /d/ 탈락 비율<sup>2)</sup>

〈그림 1〉에서는 카라카스, 라스팔마스, 말라가, 마드리드, 리마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d/를 탈락시키는 경향이 관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리마에서는 남성의 탈락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남녀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발렌시아에서는 오히려 여성 화자들의 /d/ 탈락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sup>3)</sup>. 이외의 다른 선행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화자들의 발화에서 /d/의 탈락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여성 화자에게서 탈락 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례도 존재하지만, 남녀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다(Alba 2000; Cedergren 1973). 이러한 결과는 여성 화자들이 사회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언어 형태를 덜 사용하고 언어적으로 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기존의 논의에 부합한다(Berk-Seligson 1978; Labov 1966; Milroy y Milroy 1978; Risell 1989; Silva Corvalán 1981).

2) <그림 1> ~ <그림 3>의 그래프는 Malaver y Perdomo(2016, 카라카스), Samper Padilla(1988, 라스팔마스), Villena Ponsoda y Moya Corral(2016, 말라가), Molina Martos y Paredes Garcia(2014, 마드리드), Gómez Molina y Gómez Devis(2010, 발렌시아), Caravedo(1986, 리마)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필자가 구성한 것이다.

3) 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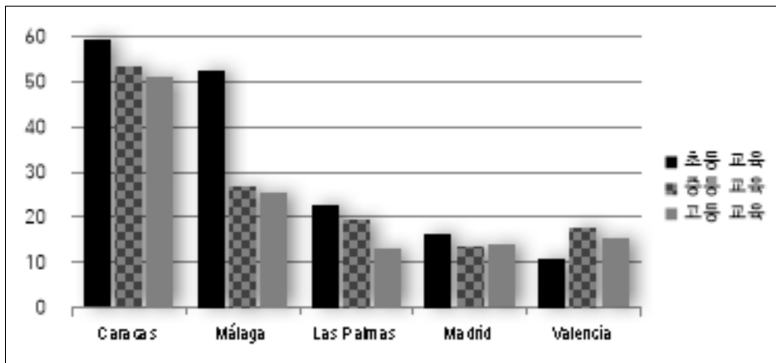
모음 사이 /d/의 변이 연구에서 화자들의 연령 역시 자주 고려되는 주요 사회 변수 중 하나이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연령대별 /d/ 탈락 양상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2〉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세대별 모음 사이 /d/ 탈락 비율

〈그림 2〉를 보면, 카라카스, 말라가, 마드리드에서는 1세대 화자들에게서 /d/ 탈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발렌시아에서는 1세대에서 탈락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라스팔마스에서는 3세대에서 모음 사이 /d/의 탈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렌시아와 리마에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2세대 화자들의 발화에서 탈락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 변수는 모음 사이 /d/에 대한 변이 연구에서 종종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지역에 따라 연령대별 변이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언어공동체 내에서 관찰되는 세대 간 언어 차이는 종종 언어 변화의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카라카스나 말라가의 경우 모음 사이 /d/의 탈락 현상이 계속해서 확산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마드리드, 발렌시아, 리마와 같은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라스팔마스(Samper Padilla 1988)나 도미니카공화국의 산티아고(Alba 2000)의 경우 청년층

보다 노년층에서 탈락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저자들은 이것을 역방향의 변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례로 보았다. 특히 Alba(2000)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화자들의 학력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신세대 화자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d/의 약화 현상이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다음 그래프는 화자의 학력에 따른 모음 사이 /d/의 탈락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3> 일부 지역에 나타나는 교육 수준에 따른 모음 사이 /d/ 탈락 비율

모음 사이 /d/의 변이에 대한 다수의 연구는 화자의 학력 수준이 이음소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즉, 학력이 낮을수록 탈락이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림 3>에 나타난 그래프는 카라카스, 말라가, 라스팔마스, 마드리드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보다 /d/를 더 많이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위 그래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결과는 모든 지역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변수들은 늘 독립적으로 /d/의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사회 변수와 다른 사회 변수 간에 상호작용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마드리드(Molina Martos y Paredes García 2014)에서는 ‘-ado’ 환경에서 1, 2세대 여성 화자들이 1,

2세대 남성 화자들보다 /d/를 더욱 많이 탈락시켰지만, 3세대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환경에서 중등 학력 이상의 학력을 가진 1세대 화자들은 36% 이상의 탈락률을 보인 반면, 초등 교육만을 이수한 1세대 화자들은 24.9%의 탈락률을 나타내었다.

### III.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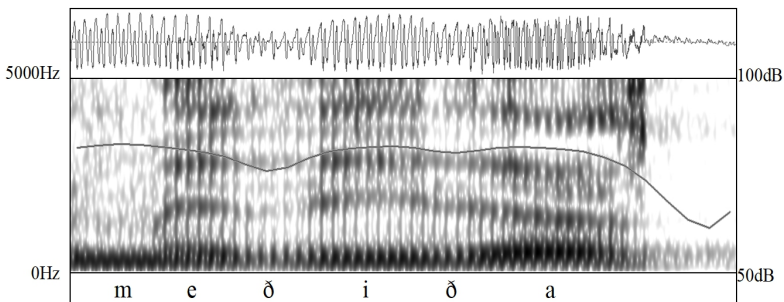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22년 7~8월 페루 쿠스코에서 필자가 직접 수행한 사회언어학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쿠스코 현지에서 필자는 화자들의 성별과 연령대를<sup>4)</sup> 기준으로 하여 남성 화자와 여성 화자들을 3개의 연령대에 균등하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자료는 24명의 현지인과 면담하여 녹음한 자료이며 이 24명의 현지인은 남성 12명, 여성 12명으로 나뉘며, 각 세대별로 8명씩 동일하게 나뉜다. 면담 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내용은 주로 화자의 삶에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가벼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면담 도중 흥미로운 주제의 이야기가 나올 경우, 준비된 질문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은 1인당 40분에서 6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면담 이후 모든 자료는 스페인어로 전사되었다.

Samper Padilla et al.(2021)에서는 스페인어의 모음 사이 /d/ 변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에서 분석 대상을 /d/가 단어 내부에 출현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반모음이 인접하는 경우는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쿠스코에서는 /d/의 약화가 다양한 위치에 확산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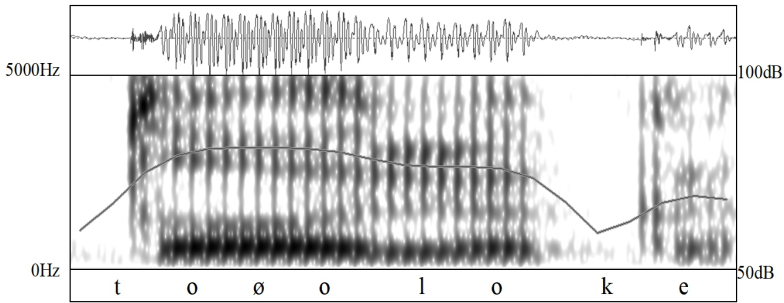
---

4) 1세대(18~34세), 2세대(35~54세), 3세대(55세 이상)

두 모음 사이에 위치하거나 반모음에 인접하는 경우도 분석하기로 하였다. 각 면담 자료에서 초반 5분은 제외하고 이후 부분부터 분석 대상 사례를 차례로 120개씩 추출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이 음소의 변이형을 실현 형태 [ð], 약화 형태 [ʰ], 탈락 형태 [ø]로 구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화 형태도 실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변이형을 실현형과 탈락형으로 구분하였다. 접근음 [ð]의 경우 대부분 청각에 의존하여 식별이 가능하였으나, /d/가 약하게 실현되거나 화자의 발화 속도가 빠르면 탈락된 것인지 아니면 실현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프랏(Praat)을 활용하여 스펙트로그램을 확인하고 청각적 정보와 시각적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변이형을 구분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 4>는 면담 자료 중 ‘medida’를 분석한 스펙트로그램으로 연속되는 모음 사이 /d/가 강도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접근음 [ð]은 발음 시 조음 기관이 폐쇄되지 않고 근접한 상태에서 발음되며 이때 포먼트가 형성되는데, 이 포먼트는 인접한 모음에 연결되면서 다소 약하게 나타난다. <그림 4>에서는 첫 번째 [ð]가 두 번째 [ð]보다 더 큰 강도로 실현되어 포먼트의 명도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d/가 탈락된 경우에는 에너지가 하강하지 않고 인접한 모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포먼트 구조를 보인다. <그림 5>에 제시된 ‘todo’의 사례에서 이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medida’의 광역 스펙트로그램(쿠스코 64세 남성 화자)



(그림 5) 'todo lo que'의 광역 스펙트로그램(쿠스코 55세 여성 화자)

본 연구에서 /d/의 탈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언어 내적 변수로 먼저 단어 내 위치를 점검하였다. 이 변수에서는 /d/가 단어 내부에 위치하는지, 단어의 첫머리에 위치하는지 구분한다. 두 번째로 /d/가 속한 단어의 음절 수에 따라 각 변이형의 실현률에 차이가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d/ 앞과 뒤에 위치하는 음소에 따라 실현 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행 환경과 후행 환경도 분석하였다.

언어 외적 변수들로는 화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 화자들의 연령대, 학력 수준에 따라 /d/의 탈락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볼 것이다. 또한, 쿠스코에서는 스페인어 이외에도 이 지역의 토착어인 케추아어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들과 스페인어-케추아어 이중언어 화자들 사이에 /d/가 탈락되는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하였다.

총 2,880개의 토큰을 대상으로 우선 *Goldvarb 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변이 사회언어학 연구를 위해 고안된 변이 규칙 분석용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윈도우즈용)이다. 이 프로그램에 각 변이형과 해당 요인들을 코딩하여 입력하면 각 사례의 분포를 절대 빈도와 상대빈도로 산출하고, 각 변이형의 출현에 특정 요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확률 비중을 산정해준다. 요인 집단(독립 변수)의 개별 요인에 해당하는 확률 비중을 통해 각

변수들의 중요도가 파악되며 이 중요도에 따라 변수들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단순히 특정 요인의 영향력 유무를 판별하는 것을 넘어 각 요인이 변이형의 출현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Goldvarb X*는 때로 실제로 영향력이 없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 발생의 가능성을 보완하고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추가 통계 검증에는 변이 연구의 통계 분석을 위해 개발된 *LVS*(Language Variation Suite)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LVS*는 *R*에 기반하여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앱으로(Scrivener, Díaz-Campos y Frisby 2016) 로지스틱 회귀분석, 조건부 추론 나무(conditional inference tree), 랜덤 포리스트(random forest) 등의 통계 기법을 지원한다. 본 연구에서는 *LVS*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통계 검증을 강화하였고, 사회 변수들 간에 상호 작용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조건부 추론 나무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분석

먼저 자료에 나타난 전체 사례의 실현 빈도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 1〉 전체 빈도

	탈락	실현	합계
빈도	856 (29.7%)	2024 (70.3%)	2880 (10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석된 면담 자료에서 /d/의 출현 위치를 어두 모음 사이 위치와 어중 위치로 한정하고, 1인당 120개의 사용례를 추출하여 총 2,880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d/의 실현 여부(탈락 vs. 실현)를 분석한 결과 탈락형은 약 30%, 실현형은 약 70%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으로 10개의 /d/ 중 3개가 탈락된 것으로, 쿠스코 지역에서 모음 사이 /d/의 탈락을 분석한 기존 연구(김경래 2023)에서 보고된 탈락률 35.9%보다 다소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에서 어두 모음 사이 위치의 /d/를 분석에 포함시킨 데에 기인한다. 아래 <표 2>를 보면 같이 어중 위치에서는 탈락이 36.4%로 나타나 이 위치에서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탈락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쿠스코 자료에 나타나는 /d/의 탈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별 기술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기술 통계 분석

<표 2> 단어 내 위치와 음절 수에 따른 실현 양상

변수		탈락	실현
단어 내 위치	어두	163(16.7%)	815(83.3%)
	어중	693(36.4%)	1209(63.6%)
음절 수	1음절	81(16.3%)	417(83.7%)
	2음절	337(31.5%)	733(68.5%)
	3음절	238(32.4%)	497(67.6%)
	다음절	200(34.7%)	377(65.3%)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음소 /d/는 어두 위치에서 16.7%의 탈락률을 보였으며 어중 위치에서는 36.4%의 탈락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탈락이 어중 위치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함을 보여준다. 어두 위치는 언어적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위치이며 다른 위치와 비교하여 약화 현상에 대해

강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mastae 1986; Yaeger-Dror 199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두 위치에서는 음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Almeida y San Juan 1998), 본 연구에서 어두 위치에 나타난 /d/의 낮은 탈락률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 위치에서도 16.7%에 이르는 탈락률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주목할만하다. 이는 쿠스코에서는 /d/의 약화 현상이 여러 문맥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쿠스코 면담 자료에서는 “le dice”가 [léise]로, “suele decir”가 [sweleesír]로 실현되는 사례가 발견된다.

또한 <표 2>에서는 단어의 음절 수에 따라서도 /d/의 실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다시피 음절 수가 많을수록 탈락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음절 수가 적은 단어에서 음소가 탈락하게 되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음절 수가 적을수록 탈락 비율도 낮게 나타날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에 따른 실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d/의 탈락은 강세 모음 뒤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출현하며 그 빈도는 /á/ > /ó/ > /é/ > /i/의 순서로 나타난다. 반면, 비강세 모음과 반모음 뒤에서는 실현형의 출현 비율이 높아진다. 비강세 모음 중에서는 /i/, /o/, /e/의 뒤에서 탈락률이 20%를 넘는다. 반모음 /j/와 /w/가 선행하는 환경에서도 탈락된 사례가 하나씩 나타났다. 특히 강세 모음 /á/ 뒤에서 /d/가 가장 높은 비율로 탈락되는 양상은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쿠스코 스페인어 역시 이러한 보편적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선행 모음과 후행 모음에 따른 실현 양상

선행 모음			후행 모음		
모음	탈락	실현	모음	탈락	실현
/á/	270(45.3%)	326(54.7%)	/á/	43(22.3%)	150(77.7%)
/é/	57(40.1%)	85(59.9%)	/é/	13(17.8%)	60(82.2%)
/í/	106(33.2%)	213(66.8%)	/í/	55(20.3%)	216(79.7%)
/ó/	146(43.6%)	189(56.4%)	/ó/	2(4.2%)	46(95.8%)
/ú/	5(17.9)	23(82.1%)	/ú/	10(30.3%)	23(69.7%)
/a/	38(12.1%)	276(87.9%)	/a/	77(25.3%)	227(74.7%)
/e/	96(20.0%)	384(80.0%)	/e/	162(24.4%)	502(75.6%)
/i/	44(24.7%)	134(75.3%)	/i/	14(14.4%)	83(85.6%)
/o/	88(22.4%)	305(77.6%)	/o/	461(44.3%)	580(55.7%)
/u/	4(6.9%)	54(93.1%)	/u/	1(7.1%)	13(92.9%)
/j/	1(3.0%)	32(97.0%)	/j/	18(12.7%)	124(87.3%)
/w/	1(25.0%)	3(75.0%)			

다음으로 후행 음운 환경을 살펴보면 비강세 모음 /o/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 모음이 /d/에 후행하는 경우 해당 자음의 탈락률은 44.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쿠스코 지역에서도 다른 여러 지역과 마찬가지로, /d/가 강세 모음 /á/와 비강세 모음 /o/ 사이에 위치할 때 탈락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한편, /d/가 반모음 /j/에 선행하는 환경에서 탈락이 약 13%의 비율로 나타난 결과도 주목할만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는 반모음이 인접하는 경우 좀처럼 약화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estudios”, “inmediatamente”, “media”, “nadie”, “pudieron”, “medio” 등과 같은 어휘에서 /d/가 탈락이 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media”의 경우 /d/와 반모음 /j/가 모두 탈락되어 [méa]로 실현된 사례도 관찰되었다.

〈표 4〉 사회 변수에 따른 실현 양상

변수		탈락	실현
성별	남성	564(39.2%)	876(60.8%)
	여성	292(20.3%)	1148(79.7%)
연령대	18~34세	347(36.1%)	613(63.9%)
	35~54세	317(33.0%)	643(67.0%)
	55세 이상	192(20.0%)	768(80.0%)
학력	중등교육 이하	212(25.2%)	628(74.8%)
	고등교육	537(32.0%)	1143(68.0%)
사용 언어	스페인어-케추아어	453(29.0%)	1107(71.0%)
	스페인어	403(30.5%)	917(69.5%)

<표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d/의 탈락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 화자들의 발화에서 /d/의 탈락률은 39.2%의 비율로 나타난 반면, 여성 화자들의 경우 20.3%에 그쳤다. 반대로 여성 화자의 발화에 /d/ 실현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쿠스코 지역의 여성들이 더 보수적인 언어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성별이 음운 변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변수임을 보여준다. 또한, <표 4>에서는 연령에 따른 /d/의 실현 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1세대 화자들의 탈락률은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세대는 33%의 탈락률을 보였다. 반면, 3세대 화자들의 /d/ 실현률은 80%에 달해, 이들 세대가 가장 보수적인 언어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화자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인 언어 형태를 선호한다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표 4>에서는 화자의 학력 수준에 따른 /d/ 음소의 탈락과 실현 분포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중등교육 이하의 화자들은 /d/를 25.2%의 비율로 탈락시킨 반면, 고등교육을 받은 화자들은 32%로 탈락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쿠스코 스페인어 화자들이 모음 사이 /d/ 탈락을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화자의 사용 언어(스페인어 단일 사용 vs. 스페인어-케추아어 이중언어 사용자)에 따른 /d/의

실현 양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 2. 추론 통계 분석

### 2.1. *Goldvarb X* 다중회귀분석

지금까지 논의된 각 요인들이 /d/ 탈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먼저 *Goldvarb 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분석의 장점은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산정하여 제시해주는 확률 비중은 해당 변이형의 출현을 유도하는 개별 요인들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확률 비중은 0에서 1의 수치로 제시되는데 0.5 이상으로 나타나면 해당 요인이 변이형의 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0.5 이하의 수치는 그 반대로 해석된다. <표 5>를 보면 ‘단어의 음절 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d/ 탈락의 출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쿠스코 스페인어 자료에서 /d/의 탈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선행 모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ú/를 제외한 나머지 강세 모음과 일부 비강세 모음이 /d/에 선행할 때 이 자음이 탈락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중에서도 강모음 /á/는 탈락을 가장 높은 정도로 유도하는 요소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후행 모음으로 비강세모음 /o/와 /e/, 그리고 강세 모음 /ú/, /í/, /á/가 후행할 때 /d/의 탈락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비강세 모음 /o/의 확률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앞선 선행 모음에서 확률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á/와 조합할 경우 -ado 형태가 형성된다. 이와 같이 쿠스코에서도 -ado 형태는 /d/의 탈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된다.

〈표 5〉 [ø]에 대한 *Goldvarb X* 다중회귀분석

범위	요인 집단	개별 요인	N	%	확률 비중
606	선행 모음	/á/	270	45.3	0.724
		/é/	57	40.1	0.664
		/e/	96	20.0	0.639
		/ó/	146	43.6	0.633
		/i/	44	24.7	0.588
		/o/	88	22.4	0.578
		/i/	106	33.2	0.571
		/w/	1	25.0	0.473
		/a/	38	12.1	0.423
		/ú/	5	17.9	0.416
		/u/	4	6.9	0.279
		/j/	1	3.0	0.118
516	후행 모음	/o/	461	44.3	0.716
		/e/	162	24.4	0.709
		/ú/	10	30.3	0.616
		/i/	55	20.3	0.604
		/á/	43	22.3	0.575
		/a/	77	25.3	0.497
		/i/	14	14.4	0.487
		/é/	13	17.8	0.465
		/j/	18	12.7	0.435
				/ó/	2
		/u/	1	7.1	0.200
286	성별	남성	564	39.2	0.643
		여성	292	20.3	0.357
271	연령대	18~34세	347	36.1	0.608
		35~54세	317	33.0	0.560
		54세 이상	192	20.0	0.337
208	단어 내 위치	어중	693	36.4	0.604
		어두	163	16.7	0.396
88	언어	스페인어-케추아어	403	30.5	0.544
		스페인어	453	29.0	0.456
80	교육	중등교육 이하	574	31.9	0.540
		고등교육	282	26.1	0.460
Input = 0.096, Log likelihood = -1471.058, Significance = 0.009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화자의 성별이다. 보다시피(〈표 5〉 참조) 남성 화자들의 탈락 확률 비중은 0.643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 화자들의 확률

비중은 0.357로 여성 화자들의 언어 사용이 좀 더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들의 연령대 또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회 변수이다. 젊은 화자들일수록 탈락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다.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언어 변수이다. 단어 내 위치 역시 /d/ 탈락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음소는 단어 내부에 위치한 경우 더 높은 빈도로 탈락한다. 마지막으로 화자들의 사용 언어와 교육 수준이 /d/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각 이중언어 화자들과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진 화자들이 /d/를 탈락시킬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 변수들의 실제 영향력을 더 검증하고자 *LVS*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Goldvarb X*의 분석 결과는 각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위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때로 변이형과 요인 간의 관련 정도가 낮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는 오류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분석에 나타난 화자들의 사용 언어와 교육 수준 변수는 요인들 간에 확률 비중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영향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면 먼저 화자를 임의 변수로 설정한 *LVS*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자.

## 2.2. *LVS* 다중회귀분석

<표 6>에 제시된 *LVS*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단어 내 위치 변수의 경우 어중 위치는 기준가인 어두 위치와<sup>5)</sup>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어중 위치에서 탈락 변이형의 출현 확률이 더 높다. 다음으로 음절 수는 쿠스코에서 모음 사이 /d/의 탈락을 예측하는 중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oldvarb X*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단음절에서는 회귀계수(Estimate)가 음수의 추정값으로 나타나 탈락형보다 실현형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5) 기준가는 분석 결과에 나타나지 않음.

있다. 그러나 단음절, 3음절, 4음절은 기준가인 2음절과 비교하여 일반적인 유의성 기준( $p < 0.05$ )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 6〉 LVS 다중회귀분석(혼합효과모델)

	Estimate	Std. Error	z value	Pr	Signif.
(Intercept)	-1.35232	0.47922	-2.822	0.00477	**
위치(어중)	0.63054	0.22486	2.804	0.00504	**
음절 수(단음절)	-0.42458	0.23169	-1.833	0.06688	.
음절 수(3음절)	0.05987	0.15368	0.390	0.69686	
음절 수(4음절+)	0.12039	0.16915	0.712	0.47664	
선행모음(/á/)	1.27384	0.28755	4.430	9.43e-06	***
선행모음(/é/)	0.97406	0.34495	2.824	0.00475	**
선행모음(/í/)	0.54617	0.30589	1.786	0.07418	.
선행모음(/ó/)	0.91552	0.33359	2.744	0.00606	**
선행모음(/ú/)	-0.73270	0.64726	-1.132	0.25763	
선행모음(/e/)	0.74116	0.24181	3.065	0.00218	**
선행모음(/i/)	0.64246	0.32043	2.005	0.04497	*
선행모음(/o/)	0.60890	0.24183	2.518	0.01181	*
선행모음(/u/)	-0.63763	0.61002	-1.045	0.29590	
선행모음(/j/)	-1.85961	1.06818	-1.741	0.08170	.
선행모음(/w/)	0.49744	1.22259	0.407	0.68410	
후행모음(/á/)	0.17244	0.32552	0.530	0.59629	
후행모음(/é/)	-0.36963	0.41556	-0.889	0.37375	
후행모음(/i/)	0.42844	0.27879	1.537	0.12434	
후행모음(/ó/)	-1.68362	0.83130	-2.025	0.04284	*
후행모음(/ú/)	0.05315	0.50944	0.104	0.91691	
후행모음(/e/)	0.93956	0.23568	3.987	6.70e-05	***
후행모음(/i/)	-0.24873	0.39338	-0.632	0.52719	
후행모음(/o/)	0.95571	0.17330	5.515	3.50e-08	***
후행모음(/u/)	-1.93794	1.18529	-1.635	0.10205	
후행모음(/j/)	-0.19144	0.32675	-0.589	0.55794	
성별(여성)	-1.30827	0.30987	-4.222	2.42e-05	***
연령(2세대)	-0.19422	0.36071	-0.538	0.59027	
연령(3세대)	-1.29605	0.40496	-3.200	0.00137	**
언어(스페인어)	-0.38056	0.38673	-0.984	0.32509	
교육(고등교육)	-0.32408	0.39604	-0.818	0.41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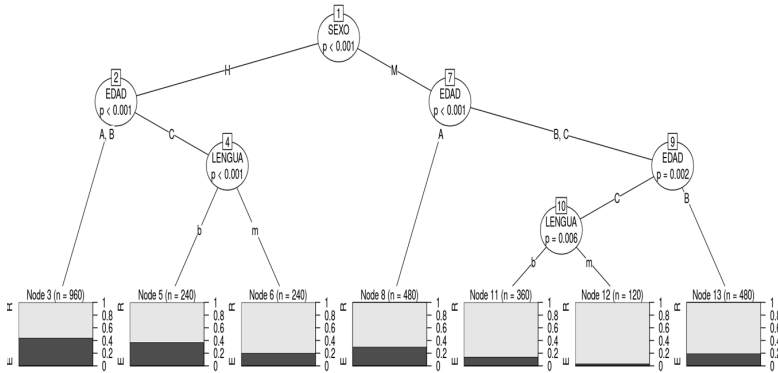
※ 유의도 : \*\*\* → 0.001, \*\* → 0.01, \* → 0.05, . → 0.1

선행모음과 후행모음 역시 모음 사이 /d/의 탈락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이다. 선행모음의 경우 강세 모음 /á/, /é/, /ó/와 비강세 모음 /e/, /i/, /o/가, 후행모음의 경우 강세 모음 /ó/와 비강세 모음 /e/, /o/가 기준가인 /a/에 대비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회 변수 중 화자들의 성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 화자들의 경우 남성 화자들보다 모음 사이 /d/의 탈락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회 변수는 화자들의 연령대이다. 먼저 2세대는 기준가인 1세대에 대비하여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3세대는 1세대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Goldvarb X*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모음 사이 /d/ 탈락 확률은 1세대와 2세대에서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자들의 사용 언어 변수와 교육 변수는 모음 사이 /d/ 탈락 여부에 관하여 중요한 예측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Goldvarb X*의 다중회귀분석 결과와 다른 결과로, 보다 정교한 분석 도구인 *LVS*의 다중회귀분석이 이 변수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더 정확하게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 2.3. 사회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추론 나무 분석 결과

마지막 분석은 *LVS*를 활용한 조건부 추론 나무 분석으로 이를 통해 /d/의 탈락에 대한 사회 변수 간의 상호작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수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할 방법을 찾아 종속 변수에 대한 개별 요인을 반복적으로 분할한다. 이러한 분할은 설명의 정확도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없을 때까지 지속되며, 결과적으로 변수의 영향력 및 변수 간 상호작용의 구조적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6>에서는 1번부터 13번까지의 마디와 이들을 이어주는 가지들을 볼 수 있다.



〈그림 6〉 /d/의 변이에 대한 조건부 추론 나무6)

〈그림 6〉의 조건부 추론 나무 분석 결과는 세 가지 사회 변수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있다. 보다시피 /d/의 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그림의 가장 상단에 위치한 화자들의 성별로 이 변수가 /d/의 변이에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 변수 하위 층위에 연령 변수가 확인되는데 이 역시 /d/의 변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닌 변수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별과 연령 변수의 중요도는 앞서 실행된 통계분석의 결과에 일치한다. 연령 변수의 아래 층위에는 화자들의 사용 언어 변수가 확인되는데, 이는 <표 6>의 혼합효과모델에서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던 변수로, 보이는 바와 같이 특정 집단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을 보면 먼저 남성의 발화와 여성의 발화를 구분하는 것이 /d/의 변이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남성 화자들의 경우 연령 변수와 상호작용한다. 남성 1, 2세대 화자들과 남성 3세대 화자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남성 1, 2세대 화자

6) 그림에서 성별(sexo)의 가지에 보이는 H는 남성을, M은 여성을 의미한다. 연령(edad) 가지에서 A는 1세대, B는 2세대, C는 3세대를 뜻하며, 언어(lengua)의 가지에서 b는 이중언어 화자, m은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를 나타낸다.

들은 3번 마디로 이어지는데 이 3번 마디의 상자를 보면 탈락(E)을 뜻하는 검정색이 40% 이상으로 나머지 상자들과 비교하여 가장 많이 나타난다. 1, 2세대 남성 화자들은 /d/를 가장 많이 탈락시키는 화자들이다. 그리고 3세대 남성 화자들 중에서 스페인어와 케추아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화자들과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들 간에 나타나는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세대 남성 화자들 중에서는 이중언어 화자들의 발화에서 탈락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

다음으로, 여성 화자들의 경우 먼저 1세대 vs. 2, 3세대로 이분되며, 이후 2세대와 3세대 간에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여성 1세대에 해당하는 8번 마디의 상자에서 탈락은 30%로 나타난다. 여성 2세대에 해당하는 13번 마디의 상자에서는 탈락이 거의 20%를 차지한다. 3세대 여성 화자들은 다시 이중언어 화자들과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들로 이분되며 이들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3세대 남성 화자들과 동일하게 3세대 여성 화자들도 이중언어 화자들의 발화에 탈락이 더 빈번히 출현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성 3세대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들이 /d/의 변이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화자들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쿠스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자음 /d/의 탈락 현상을 변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 지역 스페인어는 모음 사이 /d/의 약화와 관련하여 독특한 양상을 나타낸다. 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지역 스페인어에서는 이 분절음의 탈락이 다양한 음운 환경에 확산되어 있어, 어중 위치에서는 물론 어두 모음 사이 위치에서도 탈락이 출현하며, 반모음이 인접한 경우에도 /d/가 탈락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특히 어중 위치에서는 36.4%의 비율로 모음 사이 /d/가 탈락되

었는데, 이는 /d/가 곧잘 탈락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스페인 남부 일부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어두 모음 사이 위치에서도 탈락이 16.7%의 비율로 출현하였는데, 어두 위치는 자음의 약화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위치임을 고려해볼 때 이 역시 모음 사이 /d/의 탈락과 관련한 쿠스코 지역 스페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어두 모음 사이 위치에서 탈락되는 단어가 대부분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고빈도 어휘들인 것을 보면, 어두 /d/의 탈락은 단어의 사용 빈도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을 수 있다(Bybee 2002). 한편, *Goldvarb X*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쿠스코 지역 스페인어에서 /d/의 탈락에 선행 환경과 후행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행 모음 /á/와 후행 모음 /o/가 /d/ 탈락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이 지역에서도 역시 ‘-ado’ 환경은 모음 사이 /d/ 탈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사회 변수 역시 영향력 있는 변수로 분석되었다. 쿠스코에서는 화자의 성이 /d/ 탈락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이 음소를 덜 탈락시키고 상대적으로 /d/를 [ð]로 더 빈번히 발음하는 화자들은 여성들로, 이는 여성 화자들이 표준적 형태에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언어를 사용하며 보수적인 언어 형태를 선호한다는 논의와 일치한다(Berk-Seligson 1978; Labov 1966; Milroy y Milroy 1978; Risell 1989; Silva Corvalán 1981). 또한, 화자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쿠스코의 젊은 세대는 가장 빈번히 /d/를 탈락시키며, 나이가 많을수록 탈락 변이형을 덜 사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 활동이 가장 활발한 2세대 화자들에게도 탈락이 자주 관찰되었는데, 이는 쿠스코에서 /d/ 탈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들의 발화에서 /d/의 탈락이 가장 높은 비율로 출현하는 것을 보면 쿠스코에서는 전체적으로 /d/의 탈락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방향으로 언어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사회 변수들의 상호 작용도 파악되었다. 남성 화자들의 경

우 1, 2세대와 3세대 간에, 그리고 여성 화자들의 경우 1세대, 2세대, 3세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3세대 화자들에서만 스페인어 단일어 화자들과 스페인어-케추아어 이중언어 화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d/ 약화 현상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페루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모습 사이 /d/ 탈락 현상을 변이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쿠스코에서 나타나는 /d/ 약화 양상이 이 지역에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 현상인지 아니면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의 일반적 현상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안데스 지역 스페인어를 대상으로 /d/ 탈락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요구된다.

## ■ 참고문헌

- 김경래(2023), 「쿠스코 스페인어의 모음 사이 /d/ 탈락 연구」,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34권 3호, 87-117.
- Alba, O.(2000), “Elisión de la /-d/ intervocálica postónica,” *Nuevos aspectos del español en Santo Domingo*, Santo Domingo: Librería La Trinitaria, 49-72.
- Almeida, M. y San Juan, E.(1998), “Fonología y gramática: El caso de /s/ final de palabra en el español canario,” *Boletín De Filología*, 37(1), 91-113.
- Amastae, J.(1986), “A syllable-based analysis of Spanish spirantization,” en Silva-Corvalán, Carmen y Jaeggli, Osvaldo(eds.), *Studies in Romance linguistics*, Dordrecht: Foris, 2-23.
- Berk-Seligson, S.(1978), *Phonological Variation in synchronic/diachronic sociolinguistic context: the case of Costa Rican Spanish*, Tesis doctoral, University of Arizona.
- Bybee, J.(2002), “Word frequency and context of use in the lexical diffusion of phonetically conditioned sound chang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4, 261-290.
- Caravedo, R.(1986), “La variabilidad del segmento 'd' en el español de Lima,” en *Actas del II Congreso Internacional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México: UNAM, 281-287.
- Cedergren, H(1979), “La elisión de la /-d-/: un ensayo de comparación dialectal,” *Boletín de la Academia Puertorriqueña de la Lengua Española* 7, 19-29.
- Clegg, J. H. y Fails, W. C.(2018), *Manual de fonética y fonología españolas*, Routledge.
- Frago, J. A.(1993), *Historia de las hablas andaluzas*, Madrid: Arco

Libros.

- Gómez Molina, J. R. y Gómez Devís, M. B.(2010), “Mantenimiento y elisión de la /d/ intervocálica en el español de Valencia,” *Verba* 37, 89-122.
- Harris, J. W.(1969), *Spanish phonology*, Cambridge, MA: MIT Press.
- Hualde, J. I.(2005), *The Sounds of Spanis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bov, W.(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Lipski, J. M.(1996), *El español de América*, Madrid: Cátedra.
- Malaver, I. y Perdomo L.(2016), “La elisión de /d/ en posición intervocálica en la comunidad caraqueña,” *Boletín de Filología*, 51(2), 147-179.
- Martínez Celdrán, E. y Fernández Planas, A. M.(2007), *Manual de fonética española. Articulaciones y sonidos del español*, Barcelona: Ariel.
- Menéndez Pidal, R.(1958), “Sevilla frente a Madrid(algunas precisiones sobre el español de América),” en D. Catalán(ed.), *Miscelánea homenaje a André Martinet. Estructuralismo e historia* III, La Laguna: Universidad de La Laguna, 99-165.
- Milroy, L. y Milroy, J.(1978), “Belfast: change and variation in an urban vernacular”, en P. Trudgill(ed.). *Sociolinguistic Patterns in British English*. London: Edwin Arnold, 19-36.
- Molina Martos, I. y Paredes García, F.(2014), “Sociolingüística de la elisión de la dental /d/ en Madrid (Distrito de Salamanca),” *Cuadernos de Lingüística de El Colegio de México* 2, 55-114.
- Moreno Fernández, F.(2004), “Cambios vivos en el plano fónico del español: variación dialectal y sociolingüística,” en R. Cano (coord.),

- Historia de la lengua española*, Barcelona: Ariel, 973-1010.
- Narbona, A., Cano, R. y Morillo-Velarde, R.(2011), *El español hablado en Andalucía*, Sevilla: Universidad de Sevilla.
- Navarro Tomás, T.(1967), *Manual de pronunciación española*, New York: Hafner.
- Penny R.(2004), *Variación y cambio en el español*, Madrid: Gredos.
- Real Academia Española y Asociación de Academias de la Lengua Española(2011),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Fonética y Fonología*, Madrid: Espasa.
- Rissel, D.(1989), “Sex, attitudes, and the assibilation of /r/ among young people in San Luis de Potosí, Mexico,”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1, 269-283.
- Samper Padilla, J. A.(1988), *Estudio sociolingüístico del español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 Tesis de doctorado, Universidad de La Laguna.
- Samper Padilla, J. A., Malaver Arguinzones, I. y Samper Hernández, M.(2021), “Guía PRESEEA de estudio de la /d/ intervocálica,” <https://preseea.uah.es/documentos-preseea-de-investigacion>
- Scrivener, O., Diaz-Campos, M., & Frisby, M.(2016), *Language variation suite*, <https://languagevariationsuite.shinyapps.io/Pages/>
- Serrano Morales, J. C.(2014), *Procesos sociolingüísticos en español de la Ciudad de México. Estudio en tiempo real*, Tesis doctoral, El Colegio de México.
- Silva Corvalán, C.(1980), “La función pragmática de la duplicación de pronombres clíticos,” *Boletín de Filología* 31(2), 561-570.
- Villena Ponsoda, J. A. y Moya Corral, J. A.(2016), “Análisis comparativo de un cambio fonológico erosivo. Variación de /d/ intervocálica en dos comunidades de habla (Granada y Málaga),”

*Boletín de Filología* 51(2), 281-321.

Yaeger-Dror, M.(1994), “Linguistic analysis of dialect “correc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cognitive saliency,”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5, 189-224.

❖ ABSTRACT

## Variationist Sociolinguistic Analysis of /d/ Deletion in Cusco Spanish

Kim, Kyounglai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enomenon of /d/ deletion in the Spanish spoken in Cusco from the variationist sociolinguistic perspective. The weakening of /d/ between vowels in Spanish has been the subject of numerous studies from a sociolinguistic approach. However, research on this phenomenon in the Spanish of the Andean region is scarce. This study analyzed data collected through sociolinguistic interviews conducted with 24 local speakers in Cusco in July and August 2022. It examined cases where /d/ appeared in intervocalic position, at the beginning of words between vowels, as well as in contexts where it was preceded or followed by semivowels. This study analyzed the degree of deletion of this phoneme and linguistic and extralinguistic variables that influenced this deletion. Results show that in Cusco, /d/ deletion has spread even to word-initial positions. It also occurs when it is followed by a semivowel. Inferential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Goldvarb X* and *LVS*, revealing that linguistic variables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deletion of /d/ than social variables. Among social variables, the speaker's gender and age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Some social variables were observed to interact with age variable.

Keywords: variationist sociolinguistics, phonetic variation, intervocalic /d/ variation, /d/ deletion, Peruvian Spanish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5. 31
- 게재확정일 : 2025. 06. 09

